

사회

■ 오늘 '스승의 날'...이런 사제지간도 있다



14일 이병철(왼쪽)씨가 백발의 제자 윤갑섭씨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해도 90세 스승 찾은 79살 제자

윤갑섭 할아버지 초등학교 은사 이병철씨와 32년째 만남 이어가

최근 사제지간에 폭력까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60년 동안이나 사랑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노스승과 백발의 제자가 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노인전문병원에서 백발이 성성한 두 노인이 손을 움켜잡고 눈물을 흘렸다. 스승과 제자 사이인 이들은 이병철(90)씨와 윤갑섭(79)씨. 이들의 인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이씨가 당시 화순군 청풍국민학교에 부임하면서 시작됐다.

교정에서 만난 26살의 젊은 선생님과 꿈 많은 소년이 지금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 긴 세월동안 사제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자인 윤씨가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양래승(79)·박해동(78)씨와 함께 32년 전부터 해마다 스승의 날에 맞춰 이씨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두 제자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면서 불편한 몸 때문에 발걸음을 하지 못했다. 이씨는 제자 윤씨를 자기 주장이 확실했고 글씨를 잘 쓰는 학생

으로 기억했다. 윤씨의 기억 속에서도 이씨는 항상 "발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던 자상한 선생님이셨다. 윤씨는 "1년 만에 찾아왔는데, 아흔의 선생님이 눈을 마주치자마자 '너 감성이 아니냐, 어찌 왔느냐'라고 반가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며 "지난해보다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씨도 "매년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제자들이 고마울 따름이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교사들 "교직 만족도·사기 떨어졌다"

고충 설문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고충 토로

교사들은 자신과 동료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 및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을 맞아 이달 9~12일 전국 교원 3271명에게 온라인으로 교원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자신이나 동료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 및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81%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충은 교사들이 같은 질문에 2009년에는 55.3%, 2010년 63.4%, 2011년 79.5%가 '떨어졌다'고 답한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교직 만족도 및 사기가 추락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교직만족도가 낮아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든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22.6%),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21.1%), '학생교과지도 및 잡무의 어려움'(14.0%) 순이었다. 교사 자신의 교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46.7%가 '대체로 만족한다', 9.6%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과반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25.7%,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5.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9%였다. 자신의 자녀가 교사의 길을 선택할 경우 '자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응답이 57.6%로 절반을 넘는 가운데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은 23.9%로 작년 조사 때의 28.8%보다 하락했다. 새로 태어나도 다시 교직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6.7%)와 '그렇지 않다(36.4%)'의 응답비율이 팽팽했다. 최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94.9%로 압도적이었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다. 한편 교사들은 스승의 날에 '제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로는 '선생님 존경합니다'(28.2%),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26.8%), '선생님이 계셔 행복해요'(26.8%) 등을 골랐다. /연말뉴스

광주교육감 "최선 다하는 교사되자"

스승의날 맞아 서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4일 스승의 날(15일)을 맞아 교사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교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를 인권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이 이전보다 투명해지고 깨끗해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힘들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and weather icons for different regions.

광주 경찰 "5·18경비 유연하게" (Gwangju Police "5.18 Security Flexibly") section with sub-headline "경비경찰 축소·질서유지 요원만 배치" (Reduce Security Police, Deploy Order Maintenance Personnel Only). It discusses police strategies for the 5.18 Memorial Service.

DAEMYUNG RESORT NEWS advertisement for Daemyung Resor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resort and text promoting special offers for members, including golf, skiing, and spa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062)380-0725 are provided.

Advertisement for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Jueungjin Driving School).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driving school campus and various vehicles like a truck, bus, car, and motorcycle. The text promotes a '문자건면허증!' (Written License) and lists benefits like '광주 최대의 규모' (Largest in Gwangju) and '깨끗한 환경' (Clean Environment).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www.yjdrive.co.kr) are included.